

# 〈太平天下〉의 풍자구조 연구

吳承龍

## 목 차

- |               |                 |
|---------------|-----------------|
| 1. 서론         | 3) 문체를 통한 풍자방법  |
| 2. 본론         | 4) 생성방법         |
| 1) 이야기의 변형구조  | 5) 풍자소설의 유형적 특성 |
| 2) 작중인물의 욕망구조 | 3. 결론           |

## 1. 서론

197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채만식의 문학연구는 주로 문학사회학적 차원에서 풍자성을 탐구하는 데 치중되었다.<sup>1)</sup> 따라서 그들 대부분의 연구는 풍자의 사회적 기능에 치중해온 나머지 풍자의 미학적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된 바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야기의 변형구조와 작중인물의 욕망구조를 유기적으로 탐구하여 풍자의 미학적 원리와 효과를 측정해 내려는 데

---

1) 김성수, "이야기의 전통과 채만식 소설의 짜임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3.

목적은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단계는 플롯의 기능과 특성 연구, 제2단계는 작중인물의 욕망탐구, 제3단계는 풍자의 생성과정과 방법을 설명하면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텍스트의 풍자성과 그 미학적 효과를 해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필자는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분석의 텍스트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채만식의 작품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나 해석은 논외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풍자(satire)란 내적형식(inner form)에 의거하여 정의된다. 풍자에서 작가는 환상적이거나 부조리한 위트나 유우머를 무기로 사용하여 어떤 대상을 공격하게 된다. 혹독한 공격자체도 기괴한 유우머(grotesque humor)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 양자 중 어느 쪽에 상당한 정도의 우월성을 부여하게 된다. 풍자는 일종의 호전적 irony라 할 수 있다<sup>2)</sup>. 풍자는 최소한도 명목상의 환상, 독자들이 기괴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최소한도 함축성있는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 공리와 행동규범이 와해되어 사회가 이상을 등졌을 때 그것에 대한 분노와 항거가 풍자를 산출해낸다. 풍자 소설이 이상세계를 철저히 배반된 상태로 나타내는 것은 독자에게 심리적 반동을 주어 진실을 열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비리와 모순이 가득찬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현상의 근원적 병폐를 인식하도록 자극하고 더 나아가 그것의 전반적인 시정을 촉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sup>3)</sup>

즉 풍자란 정서가 재미와 경멸의 다양한 조화로 결합되어 있음을 강조, 혐오와 함께 인간의 부조리에 대한 찡그린 웃음이나 부패한 기만의 폭로에서 오는 통쾌한 웃음으로부터 생기는 약간의 즐거움 같은 것들이 부분부분 조화를 이루어 풍자적 정서가 나타난다.

2) 金允植, 「文學批評用語事典」(일지사, 1976), p. 294.

3) 민현기, "풍자소설의 이론", 「한국근대소설론」(계명대학교출판부, 1984), pp. 225~229.

## 2. 본 론

### 1) 이야기의 변형구조

이야기의 생성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내용을 최소의 의미단위로 분절하여 재구성하는 작업을<sup>4)</sup> 통하여 플롯의 체계를 해명해야 한다. 최소 의미망의 분절개념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방법을 원용한다. 필자는 의미단락을 텍스트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약화되거나 무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절단위(단락소)를 정한다.

〈태평천하〉는 23개의 의미단락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각 의미단락은 필자가 소설의 특징에 따라 에피소드, 삽화, 가족 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분절하였다.

〈표1〉

(1) 인력거삐 이야기	에피소드(E)
(2) 버스 무임 승차, 춘심 공짜로 들어가기	에피소드(E)
(3) 하등석포로 상등석 앉기	에피소드(E)
(4) 대문 열려 있음에 역정내기	집안이야기(F)
(5) 서울로 이사한 사연(집안내력) : 도적 습격, 권총강도 사건	집안이야기(F)
(6) 가문빛내기 사업	집안이야기(F)
(7) 집안 분위기	집안이야기(F)
(8) 고씨와 싸움	집안이야기(F)
(9) 태식과 경손의 싸움	집안이야기(F)
(10) 인생무상, 재혼 생각……시대인식 태도 : 친일적	삽화
(11) 춘심이와 연애 수작	삽화
(12) 집안 분위기	삽화
(13) 경손과 춘심이 연애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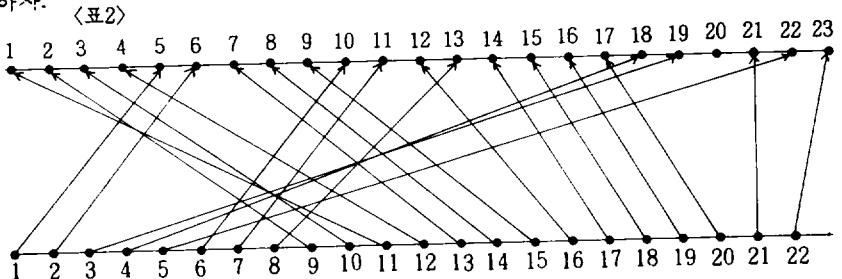
4) 안성수, “〈배따라기〉의 구조”, 『백록어문 5』(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88), p. 59.

- |                                     |       |       |
|-------------------------------------|-------|-------|
| (14) 종수 상경 : 은둔자금 요청                | ----- | ----- |
| (15) 종수와 아버지첩 일화                    | ----- | ----- |
| (16) 창식의의 마작노름                      | ----- | ----- |
| (17) 전보 음                           | ----- | ----- |
| (18) 윤직원 건강법 실시 이야기                 | ----- | ----- |
| (19) 재산 늘리기                         | ----- | ----- |
| (20) 진시황과 알레고리 동등시 : 재산, 신분, 건강, 장수 | ----- | ----- |
| (21) 반지값 내리기                        | ----- | ----- |
| (22) 각종 기부금 내기를 싫어하는 사연             | ----- | ----- |
| (23) 전보를 읽음 : 종학이 체포됨               | ----- | ----- |

〈태평천하〉의 플롯은 전통적인 플롯개념인 인과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파노라마식 구성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독자들에게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작중인물의 행위를 부각시키기 위한 에피소드의 배열로 이루어졌다. 얼핏 보면 플롯구조가 산만한 것 같지만 풍자의 대상을 공격하기 위한 필연적 구조이다.

때문에 작품 전체의 인과성이 약화되고 회화적 에피소드의 기능이 강조되는 형식으로 풍자효과를 누적적으로 확대시키는 특이한 구조를 보인다.

이야기의 변형기법에 대한 탐구는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기 이전의 이야기 질서와, 이후의 질서를 비교하여 작품의 변형원리와 미학적 특성을 기법의 차원에서 검증하는 방법이다.<sup>5)</sup> 이제 〈태평천하〉의 플롯의 특성을 살펴 보기로 하자.



5) Ibid., p. 61.

〈표2〉에서 보듯이 사건의 유기적 인과성보다 작중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에피소드를 배열시키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풍자대상의 성격적 측면을 나타내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중간 이후에는 군데군데 에피소드를 삽입하여 풍자성을 누적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대상의 성격적 특성을 먼저 설정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중간 이후에는 이야기의 순서와 같게 하면서 에피소드를 삽입하여 독자의 쾌감을 유지시키는 구조이다.

## 2) 작중인물의 욕망구조

지라르는 욕망구조<sup>6)</sup>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개인이 무엇을 욕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지금의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데 이때 초월은 자신이 욕망하게 되는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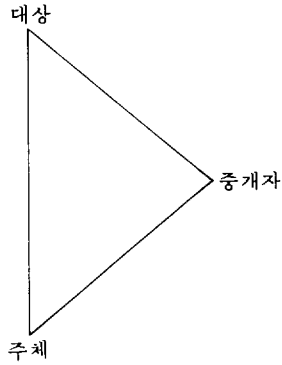
그는 돈키호테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돈키호테가 주체가 되고 이상적인 방랑의 기사는 대상이 된다. 이상적인 방랑의 기사는 아마디스라는 전설의 기사를 모방한다. 즉 이상적인 기사도에 도달하고자 하는 돈키호테의 욕망은 아마디스라는 중개자(médiateur)에 의해 간접화되고 있고 주체와 대상 사이에는 간접화 현상(médiation)이 일어난 것이다.<sup>7)</sup> 여기서 주체의 욕망은 수직적인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상승하여 중개자를 거친다는 것이다.〈표3〉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이론을 원용하여 〈태평천하〉에 나타난 관련인물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의 지향성과 타락한 삶의 방법을 폭로하여 그 결과를 풍자의 의미와 질량으로 연결시켜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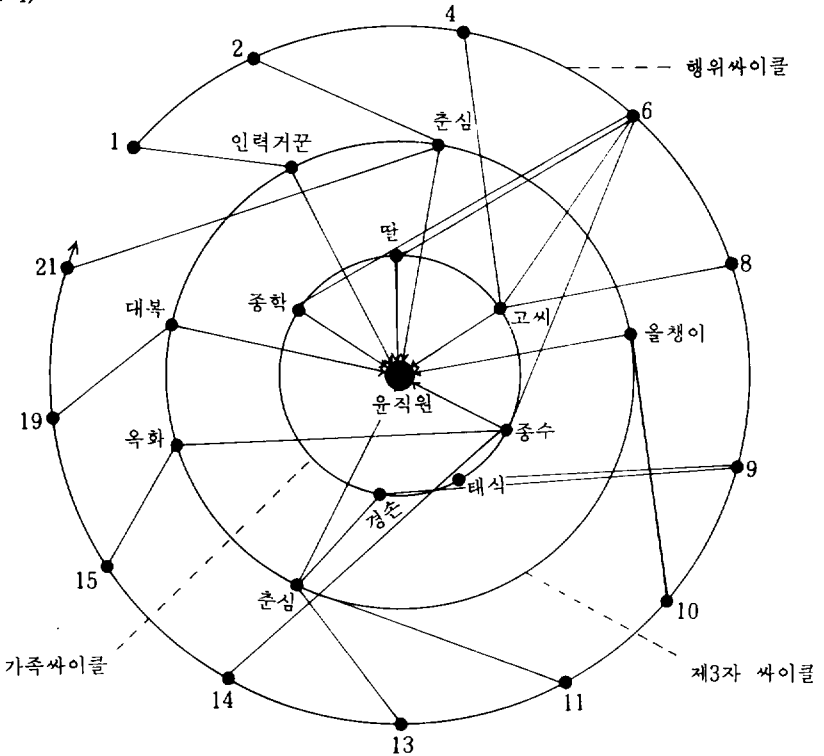
6) 김치수편, 「구조주의와 문학비평」(홍성사, 1980), pp.117~237.

7) Ibid., p. 237.

<표 3>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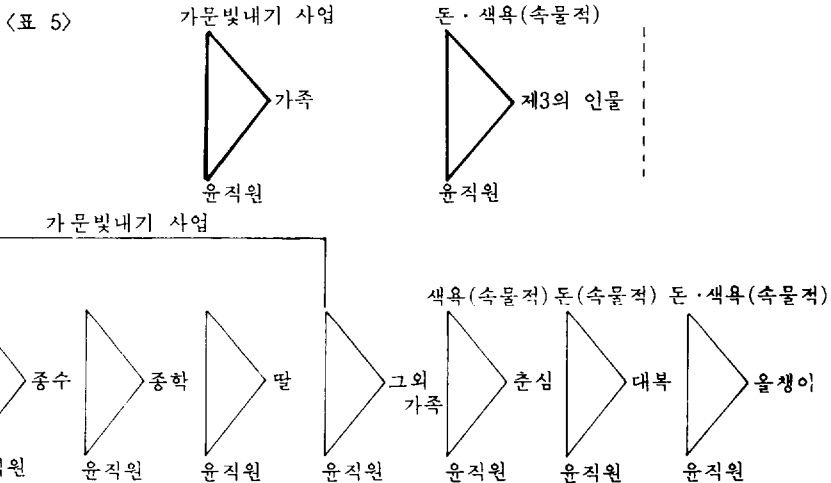


<표 4>에서 보듯이 행위사이클에 윤직원을 중심으로 사건관련자, 욕망관련자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윤직원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가족과 제3의 인물들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을 충족시키려 의도한다. 가족을 통해서서는 가문빛내기 사업을, 제3의 인물을 통해서서는 속물적인 욕망(돈, 색욕, 물질욕 등)을 성취하려 한다.

개별적인 인물들의 욕망구조를 살펴보면 확실해진다.

(1) 윤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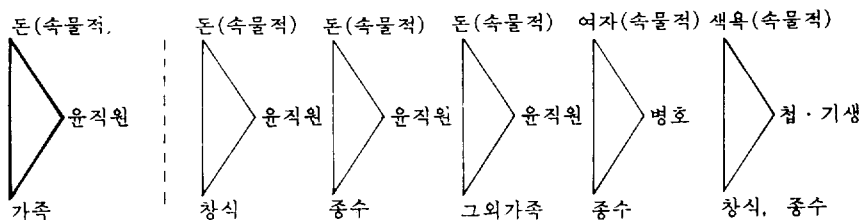


<태평천하>에서 윤직원은 돈을 내세워 자신을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을 욕망 달성의 협조자로 강요하고 있다. 위 <표 4>에서도 보았듯이 가족을 통해서서는 가문빛내기 사업을, 제3의 인물을 통해서서는 속물적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다. 이런 그의 욕망때문에 그 행위는 편집광적이고, 자신의 행위를 옳다고 믿고 과대평가한다. 또한 타인의 반응은 아예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함으로써 독자들에게는 한심스럽고 우스꽝스런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 즉 현실에 대한 사리판단이 없이 극도의 자기 편향적인 본능이 지배하는 인간형이다.<sup>8)</sup>

8) 민현기, 「한국근대소설론」 (계명대학교출판부, 1984), p. 230.

## (2)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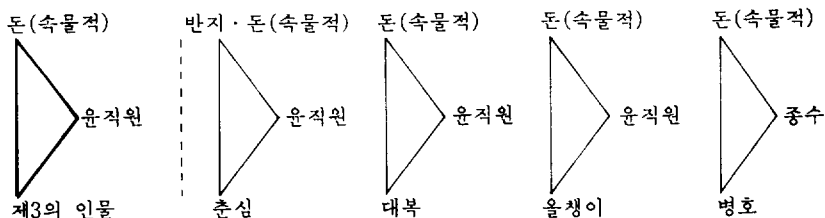
〈표 6〉



윤직원 가족들은 욕망추구 행위를 윤직원의 가문빛내기 사업에 동조하거나 순응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그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위선을 보여주는 타락한 인물들이다. 가족들 역시 돈이나 색욕을 추구하는 속물적 인물로 행동함으로써 독자들의 쓴웃음을 자아낸다.

## (3) 제3의 인물

〈표 7〉



〈태평천하〉의 제3의 인물들 역시 위 〈표 7〉에서 보듯이 오직 돈이나 물질만을 추구하는 속물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얼핏 보면 윤직원 일가를 통해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실은 자신의 욕망을 비밀스럽게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태평천하〉의 작중인물들은 한결같이 역사의식이나 민족의식, 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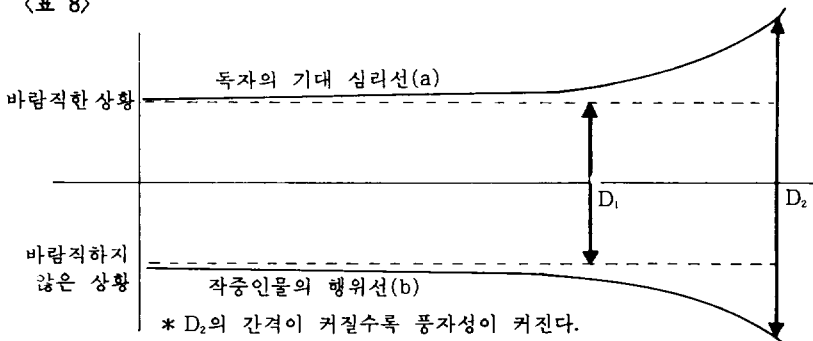


은 인간주의적 정신구조를 결여하고 있는 속물적 인간이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윤직원만을 풍자적 공격의 대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태평천하〉의 부인물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욕망방식에 의해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평천하〉의 인물들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거나 갈등하는 입체적 인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정적인 인물들이다. 일반적으로 입체적 인물보다는 평면적 인물들이 풍자의 대상으로 적합한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츠베탕 토도로브는 문학의 작품은 일차적 상징체계가 아니라 이차적 상징체계라고 했다.<sup>9)</sup> 즉 표면적으로 표현된 욕망들은 이차적(심층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 말은 위 설명의 근거가 된다.

여기에서 〈태평천하〉의 작중인물들은 일차적으로는 서로 다른 욕망을 추구하고 있지만 결국 문학적 의미에서는 속물적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작중인물 모두가 풍자의 대상이 된다. 이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중인물과 독자의 심리적 거리를 도표를 통하여 설명하겠다.〈표8〉

〈표 8〉



앞부분에서는 작중인물들이 속물근성을 나타내어 독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에피소드의 배열에서 작중인물들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중간부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위가 반복된다. 그래

9) 츠베탕 토도로브, 「구조시학」, 광광수역(문학과 지성사, 1977), p. 35.

서 그의 사업에 부작용이 나타난다. 족보 위조, 직원벼슬 얻기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양반과 혼인하기 사업으로 시집보낸 딸은 과부가 되어 돌아와있고, 몰락양반의 자손을 머느리로 받아들이지만 자손들이 나돌아다니 생과부를 만든다. 양반과의 혼인은 집안 불화의 씨앗이 되어 문제가 점점 확대된다. 또 군수·시장 만들기 사업은 별 소득이 없어 점점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된다. 마지막 부분에는 처음부터 누적되어 온 부작용이 노획되어 그의 가문빛내기 사업은 무의미하게 되고, 그의 속물적 욕망들도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난다. 여기서 독자들은 바람직한 상황에서 작중인물들에게 실소를 보내게 된다.

작중인물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나, 독자들의 기대심리는 바람직한 상황속에 머무르면서 작중인물들의 행위를 비교한다. 따라서 독자의 기대 심리선과 작중인물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선이 반비례의 형태로 멀어지면서 풍자의 효과는 그만큼 증대된다.

### 3) 문체를 통한 풍자방법

〈태평천하〉에서는 풍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수사적 방법이 동원되었다. 앞에서 작품구조나 욕망구조 등은 논의되었고, 이제 수사적 기교와 서술자의 어조를 살핌으로써 풍자성을 탐구한다.

#### (1) 수사적 기교

##### ㄱ) 아이러니, 위트, 조롱<sup>10)</sup>

아무러나 이래서 조손간에 계집애 하나를 가지고 동락을 하니 노소동락(老小同樂)일시 분명하고, 곁하여 규모 집안다운 계집소비절약이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절약은 좋을지 어떨지 몰라도 안에서는 여자의 인구가 남아 돌아가고(그래 한숨과 불평인데) 밖에서는 계집이 모자라서 소비절약을 하고(그래 철순 노옹이 예순 다섯 살로 나이를 야바우치고 열

10) 민현기, 「한국근대소설론」(계명대학교출판부, 1984), p. 115.

다섯살 먹은 애도 강짜도 하려고 하고) 아무래도 전시(戰時) 체제하의 용어를 통제가 서지를 얹고 물자배급(物資配給)에 체화(滯貨)의 품부족(品不足)이라는 슬픈 정상을 나타낸 게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예문에서는 아이러니와 위트, 조롱이 역설적으로 혼합되어 윤직원가의 추한 모습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작가가 개입해서 물자배급에 체화와 품부족 현상(집안에는 여자가 많고 집밖에는 여자가 모자라 증조할아버지와 증손자가 기생하나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현상)이라는 경제혼란의 문제로 우스꽝스럽게 비약시킨 것은 특히 대상을 향한 공격효과적인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 ㄴ) 과장

성격묘사에는 관계없이 대개 인물묘사와 대상의 결합을 확대시켜 뚜렷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sup>11)</sup>

대가리가 어찌면 그렇게도 큰지 남의 것 같읍니다. 눈은 사팔이어서 얼굴을 모으로 돌려야 똑바루 보이고 코는 비가 오면 고개를 숙어야 합니다.

열 다섯살이라면서 몸뚱이는 네댓살박이 만큼도 발육이 안되고 그렇게 가냘픈 몸 위에 가서 깜짝 놀라게 큰 머리가 올라 앉은 게 하릴 없이 콩나물 형국입니다.

앞의 예문은 사동인 삼남이에 대한 인물묘사이고, 뒤의 예문은 태식에 대한 인물묘사이다. 이것은 성격묘사에는 관계없이 기형적 특성만을 강조해서 인물을 격하시키고 있다.

그런 것을 글씨 절하고 보입던 못할망정 버얼떡 자빠져서는 한단 소리가 무얼 활어 먹느라고 주둥이를 끌고 다녔느냐는게 첫인사니, 놈이 후레자식이 아니라구요.

11) 강정식, “채만식문학의 풍자: 〈太平天下〉를 中心으로”, 『백록어문』 (창간호, 제주대학교국어교육과, 1986), p. 107.

이 예문도 과장된 표현의 일종이다. 자기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의 어른을 보고, “무얼 활어 먹느라고 주둥이를 끌고 다녔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과장은 대상의 결함을 확대시켜 뚜렷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 (2) 서술자의 어조

〈태평천하〉에서는 서술자의 다양한 어조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일거일동이 모방됨으로써, 웃음거리로 되는 것이 뚜렷해진다.

### ㄱ) 욕설

남더러 전집스런 소리를 잘하는 것도 아마 윤직원 영감의 대부분 내림인가 봅니다. 그러나 그 보다는 종수는 갈데없는 후례자식입니다. 한 것이, 병호와는 같은 고향인데, 나이 십오 년이나 층이 집니다. 십오 년이면 부집(父執)이 아닙니까. 종수 제 부친 창식이 윤주사가 마흔 여섯이 와 해서, 사실상 병호와는 네랑내랑 하는 사이니까요. 그런것을 글씨, 절하고 보입던 못할망정 버얼떡 자빠져서는 한탄 소리가 무얼 활어 먹느라고 주둥이를 끌고 다녔다는게 첫인사니, 놈이 후례자식이 아니라구요.

서술자가 개입해서 나쁜 것을 솔직히 나쁘다고 밝히면서 대상의 결함을 공격하고 있다.

### ㄴ) 야유

춘심이는 데그르르 웃고, 윤직원은 끄! 저 잡것 좀 부아! 하면서 혀를 찹니다. 연애를 하면 밤이 쉬 삭는다구요. 윤직원 영감은 그런데 저녁밥을 설치기까지 한 판이라 속이 다뽁 허출해서 우동 한 그릇을 탕수육으로 반찬 삼아 길게 먹었습니다.

연애는 환장이니라(love is blind)란다더니, 옛말이 미상불 옳아, 이따지도 야속스리 윤직원 영감 같은 노인에게까지 들어맞기를 하는군요.

72살의 윤직원이 15살의 춘심이를 유혹하는 장면을 역시 서술자가 개입해서 속물적인 근성을 지닌 인물임을 야유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연애를 하면 밥이 쉬 식는다”, “연애는 환장이니라” 등의 표현은 윤직원이 호색한임을 독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불결하고 속악(俗惡)한 상황에 대한 비난의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다.<sup>12)</sup>

ㄷ) 회화(戲畫)

윤직원이 향교에서 풍월하는 상의와 선비와의 물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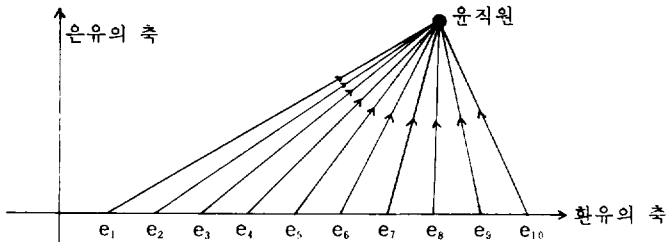
대체, 거 공자님허구 맹자님허구 팔씨름을 하였으면 누가 이겼으요?

이 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향교의 직원이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명함을 갖고 있으며 윤직원의 천박함을 회화화한 예이다.<sup>13)</sup>

#### 4) 생성방법

이 소설은 풍자의 주대상인 윤직원의 성격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이한 구조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모든 이야기가 등장인물의 특성을 형성시키는 데 작용하고 있다. 단일한 에피소드와 거의 인과성이나 논리성이 없는 파노라마적 행동의 배열을 통하여 풍자의 효과가 윤직원을 구심점으로 집중되어 누적되면서 수렴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부인물들의 행위는 일차적으로는 주인공의 풍자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제공되지만, 이차적으로는 자신들의 풍자효과를 창조하는 주체가 된다.<표9>

<표 9>



12) 민현기, 「한국근대소설론」(계명대학교출판부, 1984), p. 114.

13) 강정식, op. cit. p.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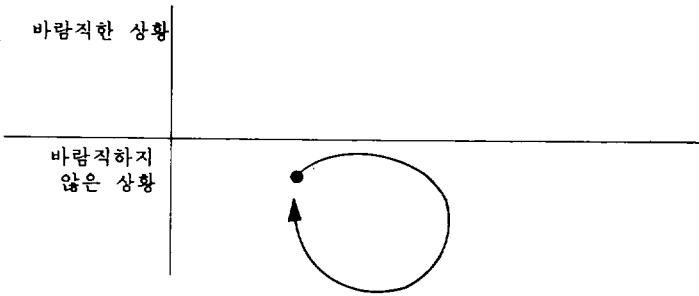
〈표 9〉에서 에피소드들이 윤직원의 성격적 특성을 형성시킨다. 즉  $e_2$ 에서의 성격적 특성은  $e_1$ 에서의 특성을 포함한다.  $e_3$ 에서의 윤직원의 특성은  $e_1$ ,  $e_2$ ,  $e_3$ 의 에피소드의 개별적 특성을 모두 내포한다. 결국  $e_{10}$ 에 가서는  $e_1$ 에서  $e_{10}$ 까지의 모든 특성을 내포한다. ( $e_2' = e_1 + e_2$ ,  $e_3' = e_2' + e_3$ ,  $e_4' = e_3' + e_4$ , ...) 즉 에피소드가 누적적으로 쌓이어 윤직원의 성격적 특성을 확실히 해주고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윤직원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투사되면서 풍자성을 총체적으로 수렴시켜 윤직원의 인물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5) 풍자소설의 유형적 특성

N. Frye는 문학의 기본적 유형을 발생론적 차원에서 4가지로 설명하였다. comedy, romance, tragedy, satire가 그것인데<sup>14)</sup>, 이 분류방식은 바람직한 상황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설정한다. 희극(comedy)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황으로 상승하는 상승구조이고, 비극(tragedy)은 바람직한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하강하는 하강구조이다. 로망스(romance)는 바람직한 상황에서 행위되는 구조이다. 풍자(satire)의 플롯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어 전혀 개량이나 개선됨이 없이 처음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절망적인 플롯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소설은 겨울의 미토스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풍자소설의 플롯구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즉 〈태평천하〉의 작중인물들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그 행위가 바람직한 상황으로 개선됨을 찾아볼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풍자소설의 작중인물들은 정적인 인물들이고 부정적인 인물군이다.〈표10〉

14) N. Frye.

<표 10> 바람직한 상황



### 3. 결 론

이상에서 <태평천하>의 이야기 변형구조, 작중인물의 욕망구조, 문체를 통한 풍자방법, 풍자의 생성방법, 풍자소설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평천하>의 플롯은 전통적인 플롯개념인 인과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파노라마식 구성법을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작품전체의 인과성이 약화되고, 회화적 에피소드의 기능이 강조되는 형식으로 풍자효과를 누적적으로 확대시키는 특이한 구조를 보인다.

둘째, 사건의 유기적 인과성보다 작중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에피소드를 배열시키고 있다. 전반부에는 풍자대상의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켰고, 중간부에서는 군데군데 에피소드를 삽입하여 풍자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윤직원 은 가족을 통해서 가문빛내기 사업을, 제3의 인물을 통해서 는 속물적인 욕망(돈, 색욕, 물질욕)을 충족시키려 한다.

네째, <태평천하>의 작중인물들은 한결같이 역사의식이나 민족의식, 혹은 인간주의적 정신구조를 결여하고 있는 속물적 인간이란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평면적이고, 정적인 인물로 풍자의 대상이 된다.

다섯째, 작중인물들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나 독자들

의 기대심리는 바람직한 상황 속에서 작중인물들의 행위를 비교한다. 이때 독자의 기대심리와 작중인물의 행위와는 반비례로 멀어지면서 풍자의 효과는 증대된다.

여섯째, 풍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사적 기법, 서술자가 개입해서 풍자대상을 공격하고 있다.

일곱째,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윤직원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투사되면서 풍자성을 총체적으로 수렴시켜 윤직원의 인물적 특성을 강조하는 특이한 생성방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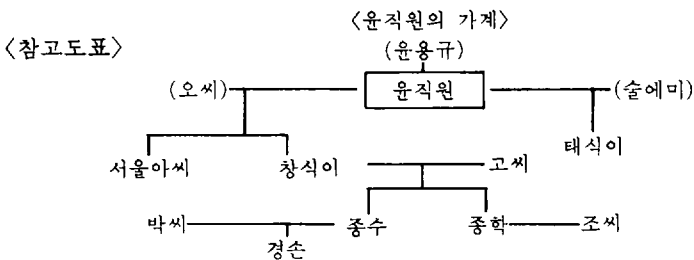
여덟째, N. Frye의 분류방식에 따른 풍자의 플롯을 채택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개선됨이 없이 처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플롯체계이다.

이 소설은 윤직원의 24시간의 일과 속에 일어나는, 5대에 걸친 윤직원일가의 가족사적 일대기를 파노라마식의 삼화구성 형식으로 보여준다. 이상에서 추출된 풍자의 미학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소설은 풍자의 기능과 효과가 누적적으로 환기되면서 증폭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풍자효과는 처음 상황보다 더욱 악화된 면을 보여준다.

둘째, 풍자의 강도는 독자의 기대심리와 풍자대상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와의 심리적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셋째, 풍자의 효과는 주인공 윤직원을 중심으로 원환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난다. 이때 주인공과 부인물의 타락한 욕망과 삶의 방식이 풍자의 총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풍자의 대상이 된다.



〈참고도표〉



## 참 고 문 헌

- 김윤식, 「문학비평용어사전」, 일지사, 1976.
- 블라디미르 프로프, 「민담 형태론」 유영대 옮김, 새문사, 1987.
- Arthur Pollard, 「諷刺(Satire)」 송낙현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76.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81.
-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 츠베탕 토도로브, 「구조 시학」 광광수 역, 문학과 지성사, 1977
- T. 호옥스, 「구조주의와 기호학」 오원교 옮김, 신아사, 1982.
- 강정식, “채만식문학의 풍자: 〈太平天下〉를 中心으로”, 백록어문(창간호, 1986).
- 김성수, “이야기의 전통과 채만식 소설의 짜임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민현기, “〈태평천하〉의 작품구조와 작가정신”, 「한국근대소설론」(계명대학교 출판부, 1984).
- 안성수, “〈배따라기〉의 구조”, 「백록어문5」(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88).
- 이어령, “諧謔의 미적범위”, 「사상계 55호」(1978).
- 르네 지라르, “육망의 이론”, 「구조주의와 문학비평」(홍성신서 30, 1980).